

# 전북특별자치도 신품종 블루베리 도매유통인 시장성 평가

기세현\*, 진성용\*, 양진호\*, 권택\*, 고연실\*, 최초룡\*, 정성훈\*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e-mail: gus132301@korea.kr

##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w Variety Blueberry Wholesale Distributor Marketability Evaluation

Se-Hyun Gi\*, Sung-Yong Jin\*, Jin-Ho Yang\*, Taeg-Kwon, Yeon-Sil Ko,  
Seong-Joon Jeong, Cho-Rong Cho\*

\*Agricultural Management & Marketing Team, 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는 진달래과 산앵두나무속 식물의 열매로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북미 대륙의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듀크, 블루크롭, 다로우, 스파르탄 등이 있다. 특히 듀크 품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ha의 재배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가능한 품종으로 여겨진다.

블루베리 과실은 기능성이 우수하여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하고 한입에 먹기 편하여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높다. 우리나라 재배면적은 2007년 2.4ha에서 2023년 3,340ha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전북특별자치도는 460ha로 13.8%를 점유하여 전국 1위 생산지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순창, 정읍, 고창, 부안지역을 중심으로 블루베리 재배 농가가 분포되어 있어 도 남부지역 중심 블루베리 특화단지 조성이 용이하다.

재배종 블루베리는 대부분 미국에서 육성한 것으로 전량 도입된 품종이며 신품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에 따라 국내환경 조건 및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2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모든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면서 이는 농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육성 과수 신품종 재배면적 점유율 12.3%로 미약하나, 과실 소비의 다양화 및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한 신품종 ‘블루레이디, 블루가든’은 Misty(모본) × ONeal(부본)을 교배조합으로 하여 육성한 품종이다. ‘블루레이디’는 남부하이부시계 ‘Misty’와 ‘O’ Neal’을 인공교배하여 개발(‘12~’19)하였으며 조생종으로 대조품종(듀크) 대비 평균 수확시기는 약 2일정도 빠르고, 과실은 대과종(3.2g), 당도는 13°brix 이상이며 독특한 향미를 나타낸다. 수세는 강한 편으로 수확후기까지 과실 크기가 고르고 생산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블루가든’은 남부하이부시계 ‘Misty’와 ‘O’ Neal’을 인공교배하여 개발(‘12~’19)하였으며 수확기는 6월 상중순이고 당도는 12°brix 이상이며 산미는 약한 편이다. 과실의 경도가 매우 높아 저장 및 유통에 유리하고 수형이 아름답고 단풍이 고와 정원수로도 유망한 특징을 지닌다.

본 과제는 블루베리 도매유통인 15명을 대상으로 대조품종을 ‘듀크’로 하여 신품종 별로 비교분석 실시 하였다. 유통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 요인으로 외부는 경도> 알크기> 색깔> 과분 순이었으며 내부는 당도> 육질> 산도> 향> 과즙 순으로 뽑았다.

블루베리 ‘블루레이디’ 평가 결과 장점은 과가 크고 당도가 높은 점이 33.3%로 높았지만 경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유통인이 취급하기에 어렵다고 하였다. 수확시기는 노지 블루베리가 많이 출하되는 6월에는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려우며, 수입산 블루베리가 들어오는 겨울철 재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종합평가 결과 ‘블레이디’가 약간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높았다.

블루베리 ‘블루가든’ 평가 결과 과는 다소 작으나 경도가 단단하여 유통인이 취급하기에 용이하지만 산도가 다소 강하여 소비자 호불호가 나뉠 가능성이 높은 품종으로 뽑혔다. 유통인 관점에서 맛 보다 경도가 더 중요한 품질 요인으로 경도가 단단해 유통인 관심이 22.2%로 높았다. 종합평가 결과 ‘블루가든’이 약간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높았다.

T. 063-290-6123, F. 063-290-6095 gus132301@korea.kr

§ 본 성과물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경상과제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2024 추계